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5. 8. 7.(금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기술지원조정과장	송효선	☎	760-7510
	과학영농 팀장	강성민	☎	760-7541
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	760-7514

농업기술원 현장 밀착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 강화

- 온열질환 예방요원 등 운영...583개소 현장점검, 1,360명 예방물품 보급 -
- 주말·공휴일 현장점검반 운영으로 농업인 안전관리 공백 최소화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.
- 농업기술원은 고령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요원 30명, 안전리더 30명, 안전관리자 4명을 위촉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.
 - 2인 1조로 구성된 요원들은 농경지와 농작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,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가를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.
- 올해 7월까지 1,152건의 현장점검과 폭염 예방활동을 실시했으며, 2,448명의 농업인에게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보급했다.
 - 현장에서는 생수, 이온음료, 쿨토시, 쿨넥, 쿨타올 등 예방물품과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하고,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.
- 주말과 공휴일에도 농업인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.

- 4개조의 현장예찰반은 농작업 현장을 순회하며 이온음료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한편, 농작물의 생유 및 피해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.
- 1개조의 상황관리반은 현장 활동을 종합 관리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, 폭염특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과 농업행정 부서 간 신속한 상황 공유와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.
- 이와 함께 농업인 교육과 ‘농작업 안전 365 캠페인’을 연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.
 - 농업인 교육과 품목별 기술지도 과정에서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, 지역방송사와 협업한 캠페인 영상 송출, SNS 웹드라마 공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다.
- 강성민 과학영농팀장은 “폭염은 농업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”며 “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실천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